



이상은

한국 “콩고 무조건 잡아라”

내일 여자핸드볼 올림픽 최종예선 1차전 프랑스·코트디부아르와 한조...2승 목표

최종예선은 총 12개팀이 4팀씩 3개 조로 나뉘어 풀리그로 진행되며 각 조 1, 2위 팀이 하계올림픽 티켓을 차지한다. 프랑스, 콩고, 코트디부아르와 3조에 속한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상 한 수 아래인 아프리카 두 팀을 제압하고 최소한 2승을 올려 조 2위에 오른다는 전략. 임 감독은 지난 25일 프랑스로 출국하기에 앞서 “콩고와 첫 판을 무조건 잡고 프랑스와 2차전에서는 상

황을 봐가며 체력을 비축한 뒤 코트디부아르와 최종전에서 승부를 걸 계획”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처럼 콩고와 첫 판은 홈팀 프랑스와 부담스러운 2차전을 앞두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한국은 1999년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공동개최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딱 한 번 만나 36-19로 크게 이긴 적이 있지만 현재 전력은 당시처럼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말 프랑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콩고는 일

본과 조별리그 예선에서 만나 후반 중반에는 8점 차까지 여유있게 앞서며 32-28, 4점 차로 승리를 거뒀고, 카자흐스탄과 17-18위 결정전에서도 연장전 끝에 27-26으로 이기는 등 예전보다 전력이 많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전에서 13골을 몰아넣은 오델 이토우아 아초노와 카자흐스탄전에서 6골로 최다득점을 올린 지셀레 동계가 경계해야 할 선수다. 임영철 감독은 “세계선수권 당시 비디오를 분석해 봤는데 체격과 힘을 내세워 싸우던 예전 전력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조직력이나 개인기가 많이 좋아졌다. 우리가 훈련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만만치 않다”고 했다. 콩고를 넘어서면 홈팀 프랑스가 버티고 있다. 30일 오전 2시 한국은 초반에 승부를 걸어보고 안되면

체력 비축에 나설 계획. 임 감독은 “프랑스도 우리처럼 2승만 거두면 나갈 수 있는 입장이다. 초반에 밀어붙여서 점수 차를 벌리며 승부를 결정지나 상대가 홈 이점 등을 이용해 거세게 나온다면 굳이 체력을 소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3차전 상대 코트디부아르(30일 오후 11시)는 한국이 1997년 세계선수권대회 예선에서 맞붙어 30-24로 완파한 팀. 베이징올림픽 아프리카 예선에서 앙골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콩고와 전력이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영철 감독은 “어차피 코트디부아르와 3차전이 올림픽 본선행을 결정짓는 경기”라며 “상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현지에서 대처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정신력으로 싸워 반드시 베이징행 티켓을 거머쥐겠다”고 다짐했다.

조선대 정혁기 3관왕 춘계대학역도선수권

정혁기(조선대)가 제5회 전국춘계대학생 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정혁기는 27일 보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77kg급 경기 인상 127kg, 용상 160kg, 합계 287kg을 들어올려 3관왕에 등극했다. 정혁기는 인상에서 2위 이태진(위덕대)보다 6kg, 용상에서 유용규(충북대)보다 25kg

을 더 들어올리는 월등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합계에서도 역시 이태진(위덕대)과 41kg차이를 보여 타 선수들을 압도했다. 보성실고 출신 정혁기는 체력이 좋아 한 때 꿈나무로 각광받았으나 고교 때 허리부상으로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구교동·최은숙 ‘금’ 전국남녀펜싱선수권

서구청이 제37회 회장배 전국남녀개인펜싱선수권대회 예매 남아일반부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구교동(광주 서구청)은 27일 충북 옥천체육센터에서 열린 남자일반 예매 결승전에서

정진선(화성시청)을 15-14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최은숙(광주 서구청)이 문선경(경기도청)을 15-14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



“과워 슛! 받을테면 받아봐라”

27일 성남하키장에서 열린 여자 하키 한국과 중국 대표 평가전에서 한국 박미현(오른쪽)이 슛을 날리고 있다. 한국이 2-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쿠에르텐 프랑스 오픈 이후 은퇴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를 지낸 구스타보 쿠에르텐(32·브라질)이 올해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접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ATP 투어 소니 에릭슨오픈(총상금 377만달러) 단식 1회전에서 세바스찬 그로장(30·프랑스)에 0-2(1-6 5-7)로 진 쿠에르텐은 팬들에게 현역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세 차례나 정상에 오르며 2000년 12월 세계 1위 자리까지 올랐던 쿠에르텐은 “내가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뛰기로 한 이 결정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쿠에르텐은 베이징올림픽 와일드카드를 받을 경우 올림픽까지 뛸 계획이다.



- 28일(금)
 - ▲2008 PGA 챔피언스 클래식 1R(04:00·SBS골프·SBS스포츠)
 - ▲2009 LPGA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1R(07:30·SBS골프)
 - ▲SBS탁구 챔피언전(14:10·SBS)
 - ▲제62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15:00·KBS N SPORTS)
 - ▲2008 일본프로야구(야쿠르트 : 요미우리)(18:00·MBC ESPN)
- 29일(토)
 -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최종예선(대한민국 : 콩고)(00:50·MBC)

학운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내일 개최

이틀간...전남대 체육관서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모임인 광주배구클럽이 주관하는 제7회 학운기 생활체육 동호인 배구대회가 오는 29~30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대회에는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 34개팀(남28개, 여 6개)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 9인제 경기로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겨룬다. 예선은 조별리그(각조 1,2위 본선 진출)

출)로 진행되고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1·2세트 21점, 3세트는 15점으로 승부를 가린다. 남자는 전남도 우승팀인 광주 무등클럽의 2연패 도전과 광주 빙고, 영암 월출클럽, 광주시교육청 팀이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여자는 첨단클럽과 북구 퍼니스, 광산구청, 광주 빙고, 배우리 배구클럽이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장수온돌침대

최대 20년 사용 가능 장수온돌침대
신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온돌침대

시원 (15초만성) ₩1,490,000
빅토리 ₩1,380,000
빅서리 ₩1,350,000

하이파라세온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

MODISH 모디쉬갤러리

시원 4인식탁 ₩690,000 (15초만성)

2008 ENE (에너지) ₩1,990,000
2008 ENE (에너지) ₩1,990,000
2008 ENE (에너지) ₩1,990,000
2008 ENE (에너지) ₩1,990,000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